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UCI]I804:24011-200000264667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2015년 2월
교육학석사(영어교육)학위논문

동화를 활용한 비판적 읽기교육

여성상에 초점을 맞춘「라푼젤」과「헨젤과 그레텔」수업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영어교육전공

박 성 하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동화를 활용한 비판적 읽기교육

여성상에 초점을 맞춘 「라푼젤」과 「헨젤과 그레텔」수업

Critical Literacy Education through Fairy Tales: Images of Women in “Rapunzel” and “Hansel and Grethel”

2015년 2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영어교육전공

박 성 하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박성하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차 희 정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강 희 조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이 정 화 인

2014년 12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목 차

ABSTRACT

제1장 서 론·····1
1.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1
1.2. 비판적 읽기와 동화읽기 ·····2
1.3. 크리티컬 리터러시·····3
1.4. 그림동화 속 여성의 유형·····5
1.5. 연구 대상 및 연구 도구 ·····9

제2장 「라푼젤」에 나타난 여성상·····11
2.1. 「라푼젤」: 마녀 혹은 대모·····11
2.2. 「라푼젤」 수업의 예·····16
2.2.1. 읽기 전 단계 ·····16
2.2.2. 읽기 중 단계 ·····17
2.2.3. 읽은 후 단계 ·····18

제3장 「헨젤과 그레텔」에 나타난 여성상·····20
3.1. 「헨젤과 그레텔」: 계모 혹은 생모·····20
3.2. 「헨젤과 그레텔」 수업의 예·····24
3.2.1. 읽기 전 단계 ·····24
3.2.2. 읽기 중 단계 ·····26
3.2.3. 읽은 후 단계 ·····27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제4장 결 론·····29

인용문헌·····30

부록·····33

<표 차례>

<표 1> 라푼젤과 마더고델의 인물 묘사 ·····17
<표 2> 계모와 남매의 인물 묘사 ·····25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ABSTRACT

Critical Literacy Education through Fairy Tales

Images of Women in “Rapunzel” and “Hansel and Grethel”

Park, Seong-ha
Advisor: Prof. Lee, Jung-Hwa, Ph.D
Major in English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sun University

This thesis presents a classroom experience of teaching two fairy tales, "Rapunzel" and "Hansel and Grethel," to foster critical literacy, focusing on images of women. A class of 22 middle school students in their third year read the two fairy tales for 6 class hours. According to studies on critical literacy, texts are written from a gendered perspective. We are led to accept what is presented in texts as normal, natural, and typical. Children’s literature, and fairy tales in particular, contains many examples of female stereotypes. I demonstrate how female stereotypes are presented in the two fairy tales--first in “Rapunzel,” and second, in “Hansel and Grethel.” In terms of images of women, both tales present two distinct female stereotypes. Generally the positive female stereotype is described as beautiful, good, warm-hearted, passive, and poor. And the negative female stereotype is described as ugly, bad, active, and mean. The most important part of reading classes designed to foster critical literacy is to create student-centered activities so that students could raise questions instead of passively internalizing what texts describe as desirable. After reading the two fairy tales, students could question the ways in which a witch and a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step-mother are described in the fairy tales and critically reconsider their own cultural assumptions concerning images of women.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제 1장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근래에 들어 중학교 전 교과에 걸쳐 독서·토론 수업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그 이유로는 전인적 성장의 기반위에 개성의 발달과 진로를 개척하는 사람, 기초능력의 바탕위에 새로운 발상과 도전으로 창의성을 발휘하는 사람, 문화적 소양과 다원적 가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품격 있는 삶을 영위하는 사람, 세계와 소통하는 시민으로서 배려와 나눔의 정신으로 공동체 발전에 참여하는 사람이 2009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인간상이기 때문이다. 중학교 교육목표는 학생의 학습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능력과 바른 인성, 그리고 민주시민의 자질함양에 중점을 둔다. 그 것은 심신의 건강하고 조화로운 발달을 토대로 바른 인성을 기르고, 다양한 분야의 경험과 지식을 익혀 적극적으로 진로를 탐색하고, 학습과 생활에 필요한 기초능력과 문제해결력을 바탕으로 창의적 사고력을 기르며, 자신을 둘러싼 세계에 대한 경험을 토대로 다양한 문화와 가치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타인과 소통하는 능력, 배려하는 마음,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과 태도를 갖추는 것이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인간상과 중학교의 교육목표에서 추구하는 것의 공통점은 자주적 행동능력 향상과 창의적 사고력, 다양한 문화와 가치에 대한 이해, 타인과의 소통능력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런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것 중 하나가 독후활동이다. 독후활동은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는데 최근 많은 학교에서 자주적 행동능력 향상과 타인과의 소통능력 등과 같은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권장되는 것 중 하나가 정해진 도서를 읽은 후 다른 사람들과 다양한 형태로 이야기하는 독서토론이다.

효과적인 독서토론을 위해 선행 되어야 하는 것은 읽기이다. 근래의 읽기는 개별적인 인지 작용이나 개인적인 사고로 판단하는 이른바 구성주의적 관점에서 한 단계 나아간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 소통하기 위한 사회적 문식성 개념이다. 사회적 문식성이란 정보의 생산과 소통의 과정 속에서 사회적인 영향력을 생각하는 능력과 책임감을 말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나아가 사회적 맥락 속에서 정보의 선택과 습득 과정에 관여하여 비판적 사고를 활성화하는 것이 비판적 읽기이다. 비판적 읽기에 관한 선행연구들에서는 비판적 읽기의 본질인 반성적 회의와 능동적 의미구성, 비판적 주체 형성 등에 대한 개념적인 정리와 방향이 잘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그 구체적인 실현 방안에서는 강조했던 비판적 읽기의 본질이나 방향이 잘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구현되어 있지 않거나 실제 수업에 있어서 활용하기가 애매한 추상적인 내용들이었다. 반면 비판적 읽기를 텍스트 이해의 전 과정에 참여하는 독자의 비판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강조하는 확장된 의미로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김혜정은 비판적 읽기의 개념을 새롭게 확장하고 재정립하여 비판적 읽기 교육에 대한 정확한 방향에 대하여 “독자 자신이 속한 읽기 공동체의 가치와 이해를 텍스트 세계와 조정하며, 새로운 가치관과 바람직한 세계관을 정립하는 과정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서술 하고 있다(11). 하지만 이 역시 학제적 연구이므로 실제 수업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절차나 모습은 찾을 수 없었다. 또한, 비판적 읽기의 실제 수업 모형은 굉장히 다양한 주제와 방법으로 구현될 수 있기에 실제수업에서의 연구를 기술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므로 중학교 수업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영어동화를 통한 비판적 읽기교육 방안을 모색해 보는 일은 현재의 교육과정에서 중요시 되고 있는 창의, 인성 교육에 대한 요구에 부응하는 시도라 할 수 있다. 또한, 비판적 읽기교육에 대한 학습자들의 반응을 분석함으로써 보다 실제적인 비판적 읽기교육의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비판적 동화 읽기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진 반면, 비판적 동화 읽기의 실제 수업 적용에 관한 연구는 많지 않다. 특히 페미니즘적인 시각에서 개별 동화를 분석한 연구들은 국내외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지만, 이러한 페미니즘적인 동화 읽기가 중등학교 교육현장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연구는 극히 드물다.

본 논문에서는 동화 속에 드러난 다양한 여성상 중 특히 부정적인 여성상에 초점을 맞추어, 학생들이 이미 알고 있는 동화를 재해석하도록 돕는 비판적 읽기교육을 실행한 사례를 공유하고자 한다. 실제 수업은 중학교 3학년 학생 22명(여학생 14명, 남학생 8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수업에서는 그림(Grimm) 형제의 동화 「라푼젤」(Rapunzel)과 「헨젤과 그레텔」(Hansel and Grethel)을 통해 동화에 나타난 여성상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1.2. 비판적 읽기와 동화읽기

고정미는 비판적 읽기에 관해 세부적인 학습 전략이 아닌 텍스트 전체를 읽고 종합적이고 분석적인 사고를 할 때 “비판적 안목”이 키워진다고 강조하면서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비판적 읽기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활동을 제안하였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다(3). 비판적 읽기를 통해 비판적 사고를 향상시킬 수 있다고 했을 때, 비판적 읽기 과정은 텍스트에 대한 해석과 재해석 및 문제 해결과 참여 성향을 포괄하는 사고 활동이어야 할 것이다. 고정미는 학생들에게 친숙한 문학 텍스트와 토론할 수 있는 현실성 있는 주제가 비판적 사고를 활성화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그러나 문학 작품을 읽고 찬반 토론을 소집단별로 하는 활동이 비판적 읽기의 성격을 보여주었다고 보기 보다는 토론 활동 그 자체가 비판적 사고를 활성화한 것이라고 해석이 된다. 이에 따라 비판적 읽기 지도와 독서토론을 통해 기르고자 하는 목표로서의 인간상을 '자신의 기준에 따라 자신이 접한 텍스트를 능동적으로 해석하고 비판적 사고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처럼 영어를 외국어로 배우는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EFL) 학습자들은 제 2언어로서 영어를 배우는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ESL) 학습자들과는 달리 지속적으로 영어 환경에 노출되지 못하므로 인위적인 학습에 의해서만 영어 이해가 가능하다. 학습동기를 보다 쉽게 유발할 수 있고 학습자들이 유년시절의 독서를 통해 이미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영어 동화를 활용한 영어 읽기는 효과적인 영어교육 방안이 될 수 있다. 영어 동화는 문학적 가치와 문화적 요소를 바탕으로 많은 활동과 연계 할 수 있는 장점 때문에 영어 교육의 여러 영역에서 이미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Wright 35).

또한, 이러한 영어 동화들이 서양의 문화적 요소를 바탕으로 쓰여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문화와의 비교 또는 당시의 동화가 쓰인 시대적 배경 등의 분석을 통한 다양한 시각으로의 접근을 가능하게 하여 다양한 분야에서의 비판적 읽기를 좀 더 쉽게 할 수 있다. 영어동화 속에는 다른 나라의 언어적 특성 및 문화적 특성이 들어 있다. 다시 말해, 영어동화를 읽음으로써 다른 나라 사람들의 언어적 직관 및 문화를 이해하고 습득할 수 있다. 영어 동화는 영어에 대한 학습자들의 심리적 부담감을 낮추고 흥미와 자신감을 갖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한국의 중학생들이 이미 성장과정에서 익숙하게 접했던 영어동화를 읽기 교재로 선택하였다. 또한, 학생들로 하여금 영어 동화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여성 이미지에 초점을 맞추어 이미 알고 있는 동화를 비판적으로 다시 보도록 하였다.

1.3. 크리티컬 리터러시

파울로 프레이리(Paulo Freire)는 『억압받는 사람들의 페다고지』(*Pedagogy of the Oppressed*)에서 비판적 교육(critical Pedagogy)의 개념을 제시하였다. 크리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티컬 페다고지는 성별, 계급 그리고 인종에 관한 불평등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인다. 크리티컬 페다고지는 교수와 학습 상황에서 권력(power)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관심을 두면서 누구의 이익을 위하여 지식이 생산되고 전달되는지를 연구하며 나아가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이 해방에 있다고 본다. 이전의 교수와 학습 상황에서는 교육의 목적을 해방이라기보다는 지식 축적으로 보았다. 프레이리는 "인간성을 되찾기 위해 끊임없이 투쟁하는 억압당하는 개인들과 민족들이 함께 만들어 내야 하는 페다고지의 양상"(30)을 크리티컬 페다고지를 통해 설명하였다. 크리티컬 페다고지는 텍스트의 "복수성"과 "복잡성"을 독자로 하여금 경계하게 하여 비판적으로 글을 읽게 한다(Morgan 151). 텍스트를 복잡하게 함으로써 독자들이 글을 무의식적으로 읽게 하려는 의도를 역으로 이용하여 텍스트의 복잡성과 복수성 속에서 독자들이 의문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비판적 읽기 교육을 중시한 프레이리는 기존 교육관을 "저금식 교육"(banking)이라고 비판하였다. "저금식 교육" 모델에 따르면, 학생들은 교사가 전달(입금)한 지식을 그대로 잘 기억(보관)하고 있다가 필요할 때 그 지식을 교사가 전달한 그대로 산출(출금)해 내어야 한다. 이러한 "저금식 교육" 모델에서 교육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아는 것이 없다고 여기는 사람들에게 일방적으로 전달"(Freire 72)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이 "저금식 교육" 모델에서는 교사와 학생의 권력관계가 명확하고, 학생들은 교사가 전달하는 지식이 심지어 자신들을 억압하고 소외시키는 것일지라도 이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고 무비판적으로 내면화하게 될 우려가 있다. 프레이리에 따르면, 일방적으로 교사가 지식과 정보를 주고 학생들은 단순히 그것을 받아들여 기억하고 반복하는 교육이 행해진다면 학생들은 창의력을 잃은 순응적인 사람들이 되고, 심지어는 억압자들의 이익에 봉사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프레이리는 "저금식 교육"과 반대되는 "문제제기식 교육"(problem-posing education)을 긍정적인 교육모델로 제안한다. 그에 의하면, "문제제기식 교육"은 "저금식 교육"과 달리, 학생들로 하여금 현실세계의 여러 가지 문제들에 의문점을 제기하고 적극적으로 질문할 수 있도록 참여시키며, 이러한 문제제기를 통해 텍스트를 재구성하도록 한다(73, 102). 그는 수업으로의 참여를 유도하여 텍스트 속에 숨어있는 실질적인 문제들에 대해 토론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창의력과 비판적 사고 능력을 키울 수 있다.

크리티컬 리터러시(critical literacy)는 이러한 비판적 교육의 이론에서 중시되는 비판적 읽기 쓰기의 문해능력이다. 크리티컬 리터러시는 "의미는 고정된 것이 아니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라 항상 의문시되는 것이며, 지식과 권력과 지위와 물질적 재원을 소유하기 위해 끊임없이 벌어지는 사회의 투쟁과 관련되어 있다"는 비평적 사회 이론의 관점에 크게 영향을 받았다(김정현 15). 크리티컬 리터러시는 수동적인 입장에서 작품에 포함된 가정과 전제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작품 이면의 전제에 의문을 제기하고 텍스트가 '자연스러운' 것으로 제시하는 가정에 문제를 제기하는 능력이다.

비판적 읽기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텍스트에 "누가 등장"하고 "누가 없는지"(missing), 그리고 "누가 소외되고 있는가"(marginalized)와 같은 문제제기식 질문으로 토론을 시작한다(McLaughlin & DeVoogd 64). 이를 통해 작품의 주인공 혹은 주요인물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도록 하고 주변화된 인물들의 역할과 숨겨진 의미들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할 수 있다. 비판적 질문 없이 글을 있는 그대로 학생들이 받아들이게 될 경우 학생들은 특정 텍스트가 '당연'한 것으로 유포하는 문화적 전제들을 그대로 받아들여 내면화하기 쉽다. 하지만 질문을 하고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학생들은 "익숙한 내용을 낯설게 느끼면서" 읽을 필요가 있다(McDaniel 142). 텍스트를 익숙한 시각보다는 전혀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보는 작업은 텍스트에 대해 보다 깊게 생각해볼 기회 또한 제공 할 것이다. 언어와 권력, 사람과 생활방식, 도덕과 윤리에 대한 복잡한 문제에 대해 질문을 제기하고 이러한 방식이 '누구에게 이익이 되고 누구에게 불이익이 되는가'에 대해 논의하는 것을 관찰한다(Comber 271). 동시에 왜 누구에게 이익이 되고 누구에게 불이익이 되어야 했을까? 처럼 질문은 더욱 확장되어 질 수 있다. 이러한 연습을 통해 다양한 시각을 가지고 비판적으로 글을 읽는 능력을 계속해서 개발하여야 한다.

1.4. 그림동화 속 여성의 유형

16세기부터 유럽에서는 수백 년 동안 구전되어 내려온 민담을 글로 남기는 작업이 시작되었고 낭만주의의 영향을 받은 그림형제 또한 이야기를 수집한다. 일반적으로는 그림형제가 직접 지방으로 다니며 농부들로부터 민담을 채집하였다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의 경우 이야기꾼(storytellers)을 집으로 불러 이야기를 듣고 또 기록하였다고 한다(권혜경 6). 당시의 이야기꾼들은 주로 중산층이나 귀족 출신의 교육을 받은 미혼 여성들이었으며, 이들 외에도 양복장이의 아내나 퇴역한 군인처럼 몇몇 평민 출신의 이야기 제보자들도 있었다(Zipes 28-29).

우리나라에서 '그림동화'의 작가로 널리 알려져 있는 형인 야콥 그림(Jacob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Grimm, 1785-1863)과 동생 빌헬름 그림 (Wilhelm Grimm, 1786-1863)형제는 독일의 언어학자이며 문학자들이다. 그림형제는 어린이들이 동화의 중요한 독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판본을 거듭하면서 어린이들에게 필요한 도덕을 가르치려는 의도를 가지고 수정을 하게 된다(노들먼 480). 이러한 과정 속에서 초판의 내용, 등장인물, 잔혹 행위, 성적인 묘사 등이 어린이들에게 부적절하다는 판단과 교훈적이고 계몽적인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는 의도 하에 상당부분 삭제되거나 변형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서 동화는 독자로 하여금 자발적인 상상력, 유연함 등을 불가능 하게 하였다. 그림동화집의 제목은 『어린이와 가정 동화』(*Children's and Household Tales*)이며 유럽전역에서 전승되던 동화와 전설, 설화 등을 그림 형제가 1807년부터 수집하고 여러 차례의 수정 작업을 거쳐 집대성한 것으로 1812년에 초판 1권, 1815년에 초판 2권, 1819년에 제 2판, 1837년에 제 3판, 1840년에 4판, 1843년에 5판, 1850년에 6판을 거쳐 1857년에 최종 7판이 발행되었으며 이 최종판에는 모두 200여 편의 동화가 실려 있다. 현재 우리들에게 읽혀지고 있는 것은 제 7판 최종판이다.

그림 동화 중에 상당한 양의 동화가 여성이 주인공이거나 이야기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널리 알려져 있는 대표적인 여성 주인공들은 '백설 공주'(Snow White), '라푼젤'(Rapunzel), '거위치기 소녀'(The Goose Girl) 그리고 '잠자는 숲속의 미녀'(Sleeping Beauty) 등이 있으며 이야기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역할로 주인공이 아닌 백설 공주의 마녀, 시녀, 이복자매, 개구리 등이 있다. 김양희의 연구에 의하면, 여성주인공들은 긍정적인 역할들로 아름다운 미를 소유했으며, 착한 심성을 가졌다. 반대로, 부정적인 역할은 마녀 또는 계모로 나오며, 마지막으로 여성주인공들은 마법이나 왕자의 도움에 의지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한다.[1] 이러한 특징들을 그림동화의 여러 작품을 통해 다시 한 번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동화의 여성주인공들은 대개 아름다운 미모의 소유자이며 이러한 미모는 지적인 면과의 연계성은 적어보이며 외면에 치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림동화의 「백설 공주」에서 여성 주인공은 "밝은 날만큼 아름다운"(as beautiful as the bright day) 또는 "매우 아름다운"(so beautiful)과 같은 자세한 표현으로 묘사되었다(*Annotated* 83). 「라푼젤」에서는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아이"(the

1) 김양희는 동화 속에 나타난 여성의 성격이 매우 극단적으로 이분화 되어 있다고 설명한다. 그녀는 권선징악의 문제를 떠나서 고정된 여성의 이미지와 왜곡된 계부모에 대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전래동화를 그대로 수용해야 하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한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most beautiful child on earth)라고 극적인 표현을 사용사거나 “찬란하도록 아름다운 금빛 머리카락”(magnificent long hair, fine as spun gold hair) 등의 신비함을 통하여 실제적이지 않은 미에 대하여 극대화해서 상징화 한 것을 볼 수 있다(*Annotated* 110). 이처럼 여성주인공에 대한 아름답다는 표현은 독자에게 이미 여성주인공이 긍정적인 성격을 갖추었으리라는 인상을 주어 아름다운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을 심어 줄 수 있다.

둘째, 여성 주인공들은 수동적, 소극적, 순종적이며 자신의 의지를 드러내지 않는 착한 심성의 소유자로 나타난다. 「라푼젤」의 “언제든 그녀가 마녀의 목소리를 들을 때면, 그녀는 그녀의 머리칼을 풀어 내렸다” (Whenever she heard the voice of the enchantress, she would undo her braids)와 같은 문장에서처럼 “언제든”(whenever) 순종하는 착한 심성의 여주인공의 모습을 볼 수 있다(*Annotated* 110). 「라푼젤」에서는 이처럼 수동적이고 연약한 여성상이 긍정적으로 그려지고 있으며, 착한 이미지로 고착되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라푼젤」이 “못된 아이”(Wicked child)라고 마녀에게 혼이 나는 부분과 “불쌍한 라푼젤”(poor Rapunzel)이라고 묘사된 부분에서처럼 괴롭힘을 당하지만 적극적으로 자신의 상황을 극복하지 않는 성격의 착한 소녀등이 전형적인 인물로 나타나고 있다(*Annotated* 113).

셋째, 여성 주인공에 맞서는 부정적인 역할의 전형은 마녀 또는 심술궂은 계모로 나타난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의 모든 그림의 동화에 이러한 인물이 등장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실상 부정적 역할을 맡게 되는 여성은 여성적이라는 고정 관념을 벗어난 성격의 소유자들이다. 즉, 수동적, 감정적, 순종적, 의존적 성품의 연약하고 소심한 여성 주인공들과 대적하는 악한 여성들이 지닌 특성은 능동적, 논리적, 이기적, 공격적, 지적인 성품들로서 흔히 남성적 특성이라고 간주되는 것들이다. 「백설공주」에 등장하는 여왕과 같은 경우 “오만한, 거만한”(proud), “고압적인, 남을 지배하려고 하는”(over-bearing)과 같은 단어들로 성격을 표현한 것을 볼 수 있다(*Annotated* 82). 이러한 단어의 특성을 볼 때에 기존의 여성주인공들과는 매우 다른 성격적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성격은 당시의 그림동화가 수집되어지던 시대에 여성적이라고 여겨지지 않았다. 또한 「백설공주」에서 마녀가 사냥꾼을 부르는 대목에서 “그녀는 사냥꾼을 불렀다”(she summoned a huntsman)의 문장에서는 summon이란 단어를 사용한 것을 보면 능동적이며 마치 왕과 같은 권위적인 모습을 엿 볼 수 있다(*Annotated* 83). 또한 「헨젤과 그레텔」 작품 속 계모가 “어찌나 어리석은지!”(What a fool you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are!)와 같이 남편에게 말을 하는 것을 볼 때, 당시의 순종적인 여성상과는 대조되는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Grimm's* 54).

넷째, 여성 주인공들은 능동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보다는 마법 또는 신비한 능력의 소유자나 요정 등과 같은 제 3자의 도움을 받으며 왕이나 왕자로 나타나는 이상적인 남성에 의해 구원을 받게 되고 결혼에 이르게 되어 행복한 결말을 맞이한다. 「라푼젤」에서 "라푼젤은 그녀가 낳은 쌍둥이 남자와 여자아이와 함께 간신히 삶을 유지하고 있었다"(Rapunzel was just barely managing to survive with the twins--a boy and a girl--to whom she had given birth)라고 쓰인 문장에서 알 수 있듯이, 여성 주인공은 자신이 직면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순응하여 간신히 삶을 유지하는 것을 볼 수 있다(*Annotated* 114). 그리고 "왕자는 라푼젤과 함께 그의 왕국으로 되돌아갔고 그곳에서 큰 축하가 있었다. 그들은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다"(The prince went back to his kingdom with Rapunzel, and there was great rejoicing. They lived in happiness and good cheer for many, many years)라는 문장을 통해 여성 주인공이 왕자와의 재회를 통해 구원을 받아 행복한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Annotated* 114). 즉 여성이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드러내거나 어려운 상황에서 선택을 하는 모습은 작품 속에서 찾아보기 드물다.

이렇듯 그림동화에서 표현되는 여성 주인공들의 모습은 "여성과 아이들이 가정이라는 권력 안에 묶여 행동이 통제되기 시작했던" 당대의 사회가 이상적이라고 생각한 대표적인 여성상이라 할 수 있다(페로 168). 자신의 목소리를 가지고 주체적으로 행동하기보다는 수동적으로 삶을 사는 여성상을 말한다. 메리 앤 퍼거슨(Mary Anne Ferguson)은 "문학에서 여성의 이미지에 관한 문제는 그것이 대개 남성의 주장이라는 것이다. 라고 말한다(6). 남성이 영웅적인 행위를 수행하는 동안 여자들은 대체로 그들을 돕는 부수적인 역할을 하거나 영웅적 행위의 포상 역할을 할 뿐이다. 즉, 남성 주인공들이 영웅적인 행위를 수행하는 사건을 제공하여 영웅적인 역할이 더욱 부각될 수 있게 한다. 구전 민담을 글로 옮겨 적은 유럽의 남성작가들이 철저하게 가부장적인 가치관에 따라 구전 민담속의 현실적인 여성상을 17세기 고전주의 사회가 요구하는 여성상으로 바꾸어 적으면서 여자 어린이를 '남성을 위한 여성'으로만 양육하고 교훈을 주고자 했다고 볼 수 있겠다. 이러한 여성상은 페미니즘시각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현대 사회의 이상적 여성상과는 매우 거리가 멀다. 페미니스트 문학 비평가 루트반(Ruthven, K.K.)은 여자아이들이 동화에서 받는 영향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 여자아이들은 동화로부터 무엇을 배우는가? 원칙적으로 그들이 배우는 것은 자신이 본질적으로 수동적 존재이며 위기 속에서 남자를 기다리는 공주와 같다는 점이다. 여자아이들은 동화 속 주인공과 같이 자신의 남성이 될 사내가 삶을 가져올 때까지 자신은 상징적으로 죽어있는 것이라고 배운다. 즉 온순하고도 무력하게, 그녀는 자신의 자율성, 결코 각성되지 않았던 그녀의 의식을 경험하지도 않은 채, 다른 사람에 대한 일종의 의존만을 기대하는 것이다. 그녀는 아름다움이 남성 중심적인 가치 범주에서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아름다워지기를 희망해야한다. (105)

다시 말해, 여자아이들은 동화를 통해서 가부장적인 사회의 가치관을 배운 후 자신이 남성이 만족스러워하는 여성이 되기를 원하고, 또 남성이 만족스러워하지 않는 여성들에 대해서는 남성적인 시각으로 혹은 부정적인 여성으로 바라보게끔 가치관을 형성해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많은 동화들에서 여성은 어떠한 형태로든지 주체로 나타나지 못했으며 모순에 가득 찬 이미지들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마녀, 악독한 계모, 심술궂은 이복 자매, 야망에 가득 찬 왕비 등처럼 말이다. 또한 이상화된 여성의 모습과 악마적인 여성의 모습으로 분리시키는 이분법적인 도식이 문학속의 여성에게 끊임없이 적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린트호프 50). 이러한 이분법적 여성상을 통해 끊임없이 여성의 모습을 규정지었다. 즉, 그림동화와 같은 전래 동화 역시 서구의 역사와 문화의 산물이며 그 속에 이러한 여성에 대한 편견이 잠재해 왔음을 유추할 수 있다.

1.5. 연구 대상 및 연구 도구

본 연구는 전남 곡성군 소재 남녀공학 O중학교 3학년 1개 학급을 대상으로 2014년 10월에서 2014년 11월까지 3주 동안 실시된 방과 후 특기적성 수업을 바탕으로 하였다. 본 학급은 3학년 총 22명 (남자 14명 여자 8명)으로 이루어졌다. 본 연구자는 그림동화 중 「라푼젤」과 「헨젤과 그레텔」이 부정적 여성상의 전형을 보여준다는 판단 하에 이 두 작품 읽기를 진행 하였고, 직접 활동 학습지를 작성하여 각 동화별로 1차시 45분 수업을 기준으로 한 3차시 수업을 실시하였다.

연구 대상 학교에 연구의 취지를 설명한 뒤 수업 시간을 이용하여 먼저 두 작품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을 읽기 전 학생들의 기존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학생들에게 학습 활동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학습 활동지는 학생들의 자유롭고 다양한 반응을 살펴보기 위해 서술형 질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영어로 서술하는 것에 대해 어려움을 느끼는 학생들도 있어 영어로 국한하지 않고 우리말을 사용하여 서술하는 것을 허용하였다. 이후 읽기 중과 읽은 후 단계에서 다른 학습 활동지를 배부하고, 학생들이 작품에 대해 생각할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한 뒤 직접 회수하였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제 2장 「라푼젤」에 나타난 여성상

2.1. 「라푼젤」: 마녀 혹은 대모

「라푼젤」에는 앞서 말한 부정적인 여성상이 존재한다. 그 사람은 라푼젤이 태어나자마자 데리고 가서 키운 마녀라고 알려진 마더 고델(Mother Gothel)이라는 인물이다. 타타르(Maria Tatar)의 주석에 의하면, 그림 형제가 처음에는 마더 고델을 "요정"(fairy)으로 지칭하였으나, 후에 "여자 마법사"(enchantress)로 바꾸었고, 몇몇 번역가들에 의해 "마녀"(witch)로 바뀌었다고 한다(109). 요정이라는 단어와 마녀라는 단어가 주는 이미지는 굉장히 반대적인 이미지이다. 처음에는 없었던 선과 악의 대립구도가 단어의 변화로 인해 생겨났다고도 볼 수 있겠다. 요정이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사용했더라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라푼젤에 대한 생각이 조금은 다를 것이라고 생각한다. 요정을 우리가 생각하는 마녀와 동일시 여기기에는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마녀라는 단어가 사용되어 마더 고델이 묘사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는 「라푼젤」이라는 작품을 이분법적인 시각에서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되었다.

"마녀는 어린아이들의 공포 환타지의 소산"이라고 규정한 브루노 베텔하임(Bruno Bettelheim)의 말처럼 마녀는 공주와 마찬가지로 동화적인 인물이자 환상적인 존재이다(116). 마녀는 현실에서는 존재하기 어려운 가상의 인물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과연 언제부터 마녀가 부정적인 여성상의 대표적인 인물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한다. 길버트와 구바(Sandra Gilbert and Susan Gubar)는 「다락방의 미친 여자」(The Madwoman in the Attic)에서 가부장 사회에서 여성은 "수동적인 천사거나, 능동적인 괴물"로 양분되었고, 천사가 아닌 가부장 사회에 반하는 여성들은 처벌을 받거나 교화되어야 하는 대상으로 표현되어 왔다고 분석한다(57). 즉 가부장 사회에 저항하는 여성들을 마녀로 규정지어 부정적인 여성으로 각인시키기 시작한 것이다. 마녀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인문주의자였던 교황 이노센트 8세가 1484년에 마녀 사냥의 시작을 위한 칙서(Summis Desiderantes Affetibus)를 발함으로 시작된다. 그리고 2년 후 두 명의 독일 도미니카 수도승은 마녀 사냥을 위한 지침서인 마녀 해머(Hexen Hammer)를 출간했다(이케카미 7). 이때의 마녀 사냥을 위한 지침서는 일반적인 내용이라기보다는 종교적인 성향이 강한 지침서였다. 마녀 사냥은 14세기 초에서 18세기 중엽까지 약 450년간에 걸쳐 유럽의 여러 지역에서 시행된 마녀 또는 마법사에 대한 종교 재판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을 가리킨다(이상택 32). 실제로 마술을 행하거나 마법을 행한 사람이 마녀 사냥의 대상이 아니라 자신들의 규범에 맞지 않게 행동하며 저항하는 사람들을 마녀로 규정지어 학살한 일종의 인종청소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여성을 사회규범에 의해 억압하고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다고 본다. 마녀 사냥의 전성기였던 중세에는 '마녀는 초자연적 능력을 가지고 마술을 부린다. 그들은 죄를 인정하거나 눈물을 흘리는 법도 없다. 그들은 자신의 힘을 믿는다. 그들은 아기를 낳지 못하며 남성역할에 월권한다' 등의 구체적인 특성들로 마녀가 정의되어 졌다(김양희 40 재인용).

그 첫 번째로, 그림형제의 「라푼젤」을 보면 마녀가 초자연적 능력 혹은 마술, 마법을 부리는 존재로 묘사됨을 볼 수 있다. "그곳은 강력한 힘을 가진 모든 세계가 두려워하는 한 여자 마법사의 것이었다"(it belonged to an enchantress, who has great power and was dreaded by all the world)라는 문장을 통해 평범한 사람들과는 다른 강력한 힘을 가졌음을 암시하는 것을 알 수 있다(*Annotated* 165). 하지만 여자 마법사가 마법이나 혹은 다른 강력한 힘을 사용하여 자신의 정원을 가꾼 내용에 대해서는 작품 어느 곳에서도 찾아 볼 수 없다. 다만 여자 마법사의 정원이 "가장 아름다운 꽃들과 허브들로 가득 차 있었다"(which was full of the most beautiful flowers and herbs)라고 묘사된 문장을 볼 때 여자 혼자의 힘으로 많은 종류의 꽃과 허브를 가꾸기 어렵다는 고정관념으로 초자연적인 힘을 사용했을 것이라 생각해서 마녀로 규정짓지 않았나 생각한다(*Annotated* 108).

두 번째로, 마녀는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이다. 타타르의 「라푼젤」에서 "출산할 때가 되었을 때, 여자 마법사는 바로 나타나 아이에게 라푼젤이라 이름지어주고 아이를 휙 채어 갔다"(When it came time for the delivery, the enchantress appeared right away, gave the child the name Rapunzel, and whisked her away)에서는 마녀가 초자연적인 힘을 가지고 있어 아이가 태어날 때를 정확히 알았음을 암시함과 동시에 그것이 마녀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성임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다(*Annotated* 109). 마녀의 정원에 들어와 마녀의 상추를 훔쳐간 것에 대한 대가로 마녀가 다른 것들을 요구 했을 수도 있으나, 마녀는 그들의 가장 소중한 아이를 요구했다. 아이를 요구한 것은 자신이 아이를 낳지 못하기 때문 일수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라푼젤」 속 마녀의 이름이 마더 고델이 아니었나 생각해본다. 그림 동화에서 "내가 아이를 엄마처럼 돌볼 것이다"(I will care of for it like a mother)라고 말하는 모습 속에서 마녀가 아닌 계모 혹은 대모의 역할을 담당하고자 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Grimm's* 165).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작품 속에서 「라푼젤」은 마녀의 금기사항을 어긴 부모 때문에 마녀의 대자녀 혹은 양녀의 형태로 12세가 될 때까지 마더 고델의 보호와 양육아래에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아이로 성장한다. 그리고 12살이 되었을 때 숲속에 계단이나 문도 없는 높은 탑에서 마더 고델의 보호아래 갇히게 된다. 12세라는 나이는 여성에게 대게 2차 성징이 시작되는 연령으로 간주되어 진다. 그러한 이유로 마더 고델은 자신의 딸을 남성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라푼젤을 분리 시켰는지도 모르겠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라푼젤이 숲을 떠나 왕자와 가정을 이루고 마더 고델이 홀로 탑에 남겨지게 되는 결말을 맞이하게 된다. 라푼젤과 왕자의 삶이 독자들로 행복한 결말(happy ending)이라고 여겨지는데 과연 마더 고델의 입장에서도 행복한 결말인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

도나휴(Emma Donoghue)의 경우에는 라푼젤과 마더 고델의 관계를 『마녀에게 입맞춤을』(*Kissing the Witch*)에 포함된 「머리카락 이야기」(The Tale of the Hair)에서 다른 시각으로 구현하였다. 「머리카락 이야기」는 기존의 그림동화 「라푼젤」을 숲속의 탑 안에 갇혀있었던 라푼젤이 자신의 시각에서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는 회고 형태의 글로 쓴 형식을 하고 있다. 우리가 알고 있던 결말과는 다르게 왕자를 선택하지 않고 마더 고델을 선택하는 결말을 보여준다. 악한 존재로만 간주되어 지는 마녀 마더 고델의 입장에서 행복한 결말로 이야기를 마무리 한 것이다.

> 몇 분이 지난 후 나는 앞으로 조금씩 나아갔다. 그녀를 찾은 것은 나의 왼쪽 발이었다. 나는 그녀의 몸을 그녀의 얼굴을 따라 느끼며 내려갔다: 그녀의 눈은 감겨있었고, 내가 맛보기 전까지 눈물이라고 생각했던 축축한 것이 젖어있었다. 나는 그녀의 눈꺼풀위의 가시들을 가능한 섬세하게 집어냈다. 그녀의 손이 나의 짧고 축축한 머리카락으로 다가와 나의 머리를 느꼈다. 보여요? 내가 물었다. 죽는 게 뭐가 문제야? 그녀가 속삭였다. 울타리들이 풍성해지고, 라벤더가 꽃필 것인데 네가 가고 없다면 그것들은 모두 황무지 같을 것이다. 나는 그녀의 머리를 끌어다 가슴에 안고 슬피 울며 그녀의 상처 난 눈에 소금을 뿌렸다. 그것이 그녀의 눈을 깨끗하게 해줄 내가 아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나는 그것들이 치료가 될지 알지 못했고 그녀가 세상을 지금부터 나에게 배우게 될지도 몰랐다. 우리는 거기에 누워 우리가 보게 될 것들을 보기위해 기다렸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 After several minutes had passed I edged forward. It was my left foot that found her. I felt my way along her body to her face; her eyes were shut, wet with what I thought was tears until I tasted it. I picked the thorns from her lids, as delicately as I could. Her hand came up and felt my head, the short damp hair. Can you see? I asked. She whispered, What dies it matter? The hedges may swell, the lavender may bloom, but it will all be wasteland when you're gone. I took her head on my chest and wept over her, salt in her wounded eyes. It was the only way I knew to clean them. I didn't know whether they would heal, or whether she would have to learn the world from me now. We lay there, waiting to see what we would see. (98-99)

「머리카락 이야기」속 라푼젤과 마더 고델 사이에는 왕자로 인해 생기는 사건이 있었다. 하지만 위의 글에서 알 수 있듯이 결국 라푼젤이 왕자를 선택하지 않고 마더 고델을 선택한 이유가 자신을 키우고 먹이고 보살펴준 마더 고델에 대한 감사함, 의리라고 생각되어지기 보다는 동성애적인 감정에 의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더 맞을 것이다. 단지 둘의 관계가 엄마와 딸의 관계가 아닌 여자와 여자의 관계로 해석한 것이다. 이는 동화 속에서 이성간의 사랑만이 옳은 것처럼 묘사된 것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라고도 볼 수 있겠다.

베로니카(Veronica L. Schanoes)의 경우 또 다른 시각에서 「라푼젤」을 분석한 것을 볼 수 있다. 『동화, 신화, 그리고 정신분석 이론: 페미니즘과 다시 만든 이야기』(*Fairy, Myth, and Psychoanalytic Theory: Feminism and Retelling the Tale*)에서 그녀는 어머니로서의 신분(motherhood) 딸로서의 신분(daughterhood) 두 가지 관점에서 작품을 분석하였다. 마더 고델의 이야기 경우 어린 시절 그녀의 아버지에 의해 성적 학대를 당한 피해자로 묘사되어진다. 마더 고델은 아버지로부터 도망쳐 나와 마침내 진정한 독립을 쟁취하게 된다. 제일 처음에는 "성행위를 주도하는 여자"(dominatrix)로써 돈을 벌게 되고 마법을 배운 뒤 문명사회로부터 후퇴한다(Schanoes 35). 마더 고델은 라푼젤을 또 다른 자신 즉 과거의 폭력과 학대로부터 때 묻지 않은 젊은 날의 자신으로 본다. 그러나 이러한 시각은 마더 고델이 라푼젤 개인의 특성을 부정하고 그녀가 양녀로 입양하여 보호하고 돌보아 주어야할 대상이라고 생각되어지는 라푼젤을 학대하기에 이른다. 마더 고델이 그녀의 어머니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가 사용하기 좋아했던 언어를 설명했을 때 그것들은 딸에 대한 욕망을 나타내는 성적인 것들이었다. 마더 고델의 어머니는 “너에 대한 꿈을 꾸었단다, 내 사랑”(I began dreaming about you, my love)라고 말하며 육체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자위하며 오르가즘을 느꼈다라고 묘사하고 있다(Schanoes 36). 그러면서 마더 고델은 라푼젤의 생모를 비인간적으로 만들어 미래에 있을 학대를 다음과 같이 암시하였다. “어떤 남자도 너와 함께 눕지 못할 것이다. 오직 나만이 그럴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엄마로서 어린 아이들의 감정을 어떻게 어루만지는지 알기 때문이다”(No man will ever lay a hand on you. Only I, because I know how to touch feelings as the mother of young children)라고 말한다(Schanoes 36). 위 작품은 마더 고델의 입장에서 라푼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단순한 피해자가 아닌 마더 고델 역시 개인적인 어려움이 있었음을 말해준다.

부정적 여성상은 동화 속에서 마술을 부리는 마녀, 악독한 계모, 못생긴 노파, 혹은 비정한 생모의 형태로 대체로 악역으로 등장하기도 한다. 스카르(Geoffrey Scarre)는 당시 유럽인의 대부분은 마녀의 나이가 전형적으로 50세 이상이며 산파, 과부, 노처녀 같은 특정한 인물이라고 생각했다(30). 이는 마녀들이 물론 아름답고 젊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늙고 못생기고 나쁜 마음씨를 지닌 것으로 묘사되는 그림동화와 연결되어진다. 부정적인 이미지를 고정화하였다고 할 수 있겠다. 그림 동화는 마녀를 보다 구체적이고 회화적으로 그려주고 있다(손은주 289). 이는 마녀들의 이미지를 보다 사악하고 부정적 여성상으로 만들어 착하고 긍정적인 주인공 여성상과 매우 대조되는 이미지를 창조해낸 것이다. 뤼터(Max Luthi)는 “지팡이에 몸을 의지한 해묵은 할멈” “머리를 흔들거리는” “사악한 마녀” “붉은 눈” “냄새를 잘 맡고,” “등이 굽은 노파” “누리끼리하고 마르고, 커다란 빨간 눈, 코끝이 턱까지 닿는 매부리코” “코 위에 걸친 안경” 등등과 같이 그림형제가 구전민담에 이 같은 문학적 수식어를 첨가함으로써 전래민담의 순수양식을 훼손시켰다고 비판하고 있다(26). 이러한 작업은 독자들로 하여금 상상력을 제한하여 작가의 의도대로 마녀에 대한 이미지를 심어주기에 충분하다. 이처럼 그림 형제의 동화에는 선과 악, 아름다움과 추함, 마녀와 인간 등 대립되는 두 개의 개념이 등장한다. 바로 이러한 외적인 묘사만으로 이미 독자는 마녀는 대체로 늙고 추한 외모를, 착한 주인공들은 아름답고 우아한 외모를 갖고 있게 마련임을 알게 한다. 이러한 문학적 훼손은 독자들로 하여금 고정관념을 심어 줄 뿐만 아니라 특징적인 외적 묘사만으로도 이미 독자는 누가 마녀인지 감지하여 동화를 선과 악이라는 단순한 이분법적인 시각으로만 읽도록 유도하여 다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까닭에 우리는 문학작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품을 읽을 때 텍스트 그대로의 내용뿐만 아니라 등장인물 등에 대해서도 의문점과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다양한 시각에서 문학작품을 읽어야 하는 것이다.

2.2. 「라푼젤」 수업의 예

본시 학습에서는 전체적으로 작품 읽기 전 단계, 작품을 읽는 단계, 작품을 읽고 난 후 단계로 나누어 각 단계별로 비판적 읽기교육과 관련한 활동을 실행하여 학생들의 작품에 대한 생각의 변화를 관찰하였다. 첫 번째 비판적 읽기를 할 영어 동화로 「라푼젤」을 선택하였다. 중학생들이 읽기에 적합한 짧은 분량과 디즈니 애니메이션을 접한 학생들의 기본적인 이해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다. 또한 「라푼젤」속에는 부정적 여성상인 마녀가 등장하는데 그 마녀를 대모로도 볼 수 있고 작품 속에서 긍정적인 여성상과의 대립구도를 통한 여성상 분석이 작품 속에서 다양한 시각으로 접근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하였다.

2.2.1. 읽기 전 단계 (Pre-reading Stage)

가장 먼저 작품 읽기 전 단계에서는 학생들에게 읽게 될 작품에 대해서 기존에 어떠한 생각 혹은 느낌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학습 활동지를 통한 사전 질문을 하였다. 학습 활동지의 구체적인 내용은 「라푼젤」 속에 어떠한 여성 등장인물이 존재하는지, 위의 여성인물들에 대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던 등장인물에 대한 생각, 느낌, 등장인물의 성격, 외모 등을 영어로 서술하도록 하였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이 등장인물을 묘사할 때에 되도록 어려움을 느끼지 않고 흥미를 잃지 않도록 하기위해서 형용사나 명사형 단어를 사용하여서 서술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학생들이 나열한 단어들을 통해서 라푼젤과 마더 고델이 어떠한 식으로 묘사되었는지 활동지의 단어들을 살펴보며 단어의 성격에 대해 분류해 보고 라푼젤과 마더 고델이 묘사된 단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서로 이야기 하는 시간을 가져보았다. 학습 활동지에 여성인물에 대한 묘사 과정에서 영어로 표현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는 우리말로 묘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주로 라푼젤은 외적으로 아름답거나 여린 심성의 소유자임을 알 수 있는 단어들이 나왔다. 반대로 마더 고델에 대해 설명한 단어들로는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성격이나 특징에 관한 단어들로 묘사된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라푼젤과 마더 고델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이야기 했을 때에는 라푼젤은 피해자로 마더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고델은 아동을 유괴한 나쁜 범죄자로 학생들이 의견을 나누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위와 같은 작품 읽기 전 활동을 통해 평상시 학생들이 가지고 있던 작품 속 여성들에 관한 기존의 고정관념에 대해서 알 수 있었다. 1차시 수업 시 22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45분 수업을 진행하여 「라푼젤」작품 읽기 전 활동으로 실행되었던 인물묘사에 관한 학생들의 응답을 라푼젤과 마더 고델로 구분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라푼젤과 마더 고델의 인물 묘사

인물	묘사 표현 (성격, 외모, 느낌, 생각 등)
라푼젤	아름다운, 금발의, 공주, 예쁜, 긴 머리의, 착한, 불쌍한, 외로운, 날씬한, beautiful, pretty, nice, long hair, lonely, poor, skinny
마더 고델	못된, 검은머리의, 늙은, 무서운, 사악한, 악랄한, 비열한, 나쁜, 초능력을 가진, 마녀, 마법을 사용하는, bad, ugly, scary, mean, magician, witch, old

작품 읽기 전 단계를 통해 학생들의 동화 속 여성상에 관한 고정관념에 대해서 알아본 후 작품을 읽는 단계의 수업을 실행 하였다.

2.2.2. 읽는 중 단계 (While-reading Stage)

작품을 읽는 단계에서는 영어 원문을 해석하는 기존의 수업방식이 아닌 작품의 등장인물에 초점을 맞추어 글의 흐름을 읽고 실제적으로 라푼젤과 마더 고델이 어떠한 단어들로 묘사 되어 있는지 찾아보았다. 그리고 찾아본 단어들이 어떠한 느낌과 어떠한 특성들로 사회적으로 규정되어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라푼젤은 긍정적인 이미지를 주는 단어들로 묘사된 점과 마더 고델은 부정적인 이미지를 주는 단어들로 묘사된 것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그것이 사회적으로 착함과 악함으로 규정지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기본적인 작품 읽기 과정이 끝난 후 우리는 라푼젤보다는 부정적으로 묘사되어진 마더 고델에 초점을 맞추어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구체적인 의문을 가져보는 시간을 가졌다. 처음에는 학생들이 어떻게 의문점을 가져야 하는지 어려움을 겪어 마더 고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델은 진짜 마녀인가? 라고 먼저 의문을 제시하여 학생들이 비판적 시각으로 작품에 의문을 가지는데 도움을 주었다. 그 결과 학생들에게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얻을 수 있었다.

-마더 고델의 이름은 어떻게 해서 마더 고델이라 이름 지어 졌을까?
-마더 고델의 부모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마더 고델은 왜 아이를 데려갔을까?
-마녀 고델이 아이를 데려간 행동과 라푼젤의 친부모가 마더 고델의 담장의 넘어와 상추를 훔쳐 먹은 것 중 어느 것이 더 나쁜 행동인가?
-마더 고델은 라푼젤에게 악한 존재인가?
-라푼젤이 마더 고델을 배신한 것인가?
-마더 고델은 강압적인 엄마의 모습인가?
-마더 고델은 현대시대의 여성으로 재해석했을 경우 어떠한 여성으로 생각되어지는가?
-마더 고델은 왜 초능력이 있는 것처럼 묘사 되었을까?
-마더 고델은 라푼젤을 가둔 탑을 어떻게 찾았을까?

위와 같은 다양한 질문들이 학생들을 통해 발문된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질문들 중에서 여성상에 초점을 맞추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 과정에서 학습자들에게 교수자가 알고 있는 지식들로 궁금증을 해소해 주지 않고 학생들이 여러 가지 상황 혹은 배경들을 유추해 보고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한 까닭은 교수자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활용하여 학습자에게 전달할 경우 학생들로 하여금 또 다른 고정관념 혹은 학습자의 생각을 주입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작품 읽기 과정이 끝난 후 마지막으로 작품을 읽고 난후 정리 단계의 수업을 진행하였다.

2.2.3. 읽은 후 단계 (Post-reading Stage)

정리 단계에서는 작품분석을 통한 「라푼젤」속 부정적인 여성상 마녀에 대한 재평가 및 다른 시각에서 작품 분석하기를 하였다. 왜 마더 고델이 마녀로 묘사되었으며 작품이 쓰인 시대적 배경으로 봤을 때 어떠한 인물들이 마녀로 취급받았는지에 대해서 확인해 보았다. 그 결과 학생들은 능동적이고, 독립적이며 진취적인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성향의 혼자 사는 인물들이 마녀로 취급받았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다시 이러한 성향의 여성들의 과연 정말 부정적인 여성상인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았다. 학생들과 의견을 나누어 본 결과 학생들은 가부장적 사회 환경이 오늘날처럼 사회적 진출을 하며 진취적인 여성들을 마녀로 규정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이처럼 마더 고델에 대한 이해과정을 거친 후 학생들에게 글쓰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라푼젤」의 작가가 새로운 판본을 낸다는 가정 하에 학생들 개인이 마더 고델의 입장이라고 생각하고 새로운 판본에 자신의 이미지 혹은 자신의 역할에 대한 수정을 해줄 것을 요구하는 식의 편지 쓰기를 하였다. 이 과정에서 영어로 쓰는 것이 어려운 학생들에게는 한글로도 써 볼 수 있도록 하였다. 학생들의 글쓰기 수업은 대체로 어렵지 않았다. 작품의 충분한 이해를 거친 후 여서 인지 학생들의 활발한 글쓰기 활동이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었다. 글쓰기 활동을 마친 후 결과물을 읽어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작가에게 자신 마더 고델도 라푼젤처럼 아름다운 인물로 묘사해 달라는 내용.
-마더 고델이 마법을 부리는 재주가 없으니 마녀가 아닌 양어머니라고 표현해 달라는 내용.
-라푼젤의 친 부모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이야기 해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
-마더 고델 자신이 라푼젤을 양육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여자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에 대해서 상세히 써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
-라푼젤이 마더 고델에게 그동안 양육한 것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지적하는 내용.
-마더 고델이 라푼젤과 왕자의 만남을 알았을 때 분노할 수밖에 없었던 것에 대해서 부모의 마음으로 다시 묘사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

이 밖에도 다양한 의견의 편지내용이 있었다. 종합적으로 편지의 내용들을 검토해 보았을 때, 학생들의 인식이 많이 변화 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마더 고델이 완전한 악으로 묘사되는 것에 대해 학생들이 많은 의문점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수업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작품 속 여성상 특히 부정적 여성상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가져 볼 수 있었다. 이러한 모든 과정이 끝난 후 학생들에게 최근에 나온 비판적 시각으로 재해석되어 쓰인 「라푼젤」의 개작들을 간단히 소개하며 학생들에게 다른 작가의 시각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소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제 3장 「헨젤과 그레텔」에 나타난 여성상

3.1. 「헨젤과 그레텔」: 계모 혹은 생모

그림동화에서 착한 여주인공과 대립하는 인물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이 마녀 혹은 계모인데 이중 계모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고자 한다. 그림 동화의 계모들은 예외 없이 사악하며 그들은 끝내는 권선징악이라는 교훈을 담고 있는 동화 속에서 잔인한 처벌, 형벌 혹은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계모를 통해서 주요 사건이 발생되고, 그녀의 사악함 또는 잔혹함이 동화 속의 착한 여주인공들을 비로소 진정한 주인공으로 만들고 있다. 계모로 인해 모진 시련을 겪는 주인공들은 한 결 같이 착한 심성으로 시련들을 순순히 받아들이고 참고 극복해 나가 끝내 계모라는 악을 이겸냄을 통하여 여주인공의 진가 혹은 가치를 드러내게 된다. 「헨젤과 그레텔」에서는 부모 자신들이 의도적으로 아이들을 숲에 남겨두고 옴으로 써 남매는 부모와 떨어지게 된다. 부모가 아이들을 갖다버린다고 하는 아동유기는 이 동화의 핵심이다.

아이러니컬한 것은 계모가 등장하는 그림동화에서는 권위 있는 아버지는 거의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설령 아버지라는 인물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백설 공주」에서처럼 둘째 부인과 재혼한 이후에 딸이 계모에게 고난당하는 어떠한 순간에도 등장하지 않는 무의미한 존재이거나 「헨젤과 그레텔」에서처럼 계모가 자신의 아이들을 가난 때문에 숲에 버리자고 할 때에도 마음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지만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말하지 못하며 계모의 의견에 따르는 수동적이며, 자신의 자녀들을 보호하지 못하는 나약한 존재로 나타나 있다. 아버지는 어떻게 아이들을 숲 속에 버려둘 생각을 할 수 있느냐며 안 된다고 하지만 결국 끈질기게 설득하는 아내의 말에 넘어가고 만다.

> ‘안 돼요, 부인’ 남자가 말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나는 나의 아이들을 숲속에 홀로 내버려두는 것을 마음속에서 결코 생각해 볼 수 없어요. 들짐승들이 아이들을 금방 조각조각 찢을 거예요.’ ‘멍청이 같으니!’ 그녀가 말했다. ‘그럼 우리 넷 모두 다 굶어 죽을 거예요. 당신은 우리 네 명의 관을 한 번에 짤 준비를 해야 할지도 몰라요!’ 그녀는 그가 동의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할 때 까지 조금의 여유도주지 않았다. '그래도 나는 여전히 불쌍한 아이들 때문에 슬퍼할 거예요' 남자가 말했다.

'Nay, Wife.' said the Man; 'we won't do that. I could never find it in my heart to leave my children alone in the forest; the wild animals would soon tear them to pieces.' 'What a fool you are!' she said. 'Then we must all four die of hunger. You may as well plane the boards for our coffins at once!' She gave him no peace till he consented. 'But I grieve over the poor children all the same,' said the Man. (*Hansel* 2)

위의 인용에서 자녀를 보호하고 외부 세계로의 안내자 역할을 해야 하는 아버지의 역할이 약화되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러나 계모의 요구에 마지못해 아이들을 숲속에 버린 아버지는 동화 마지막에 헨젤과 그레텔이 집으로 돌아 왔을 때 누구보다도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아이들과 행복하게 사는 내용을 보여주기는 한다. 동화의 결말부분에서 가난한 주인공은 행복함과 부를 동시에 얻게 된다. 부라는 물질적인 개념과 행복이라는 정신적인 개념이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적어도 하층민의 시각에서 볼 때 부유함과 행복은 결코 분리될 수 없이 항상 함께 존재한다고 믿는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 남자는 아이들을 숲에 놔두고 온 이래로, 한순간도 기쁜 시간을 가지지 못했다. 그러나 그 여자는 죽었다. 그레텔은 방이 진주와 보석들로 그녀의 앞치마가 다 비워질 때 까지 내어 놓았고, 그레텔은 그의 주머니에서 한주먹 그리고 또 한주먹 쏟아 내었다. 모든 걱정거리는 끝이 났고 그들은 함께 완전한 행복 속에서 살았다.

The man had not known one happy hour since he had left the children in the forest. The woman, however, was dead. Gretel emptied her pinafore until pearls and precious stones ran about the room, and Hansel threw one handful after another out of his pocket to add to them. Then all anxiety was at an end, and they lived together in perfect happiness. (*Hansel* 9)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계모는 아이들에게 조금의 빵을 나누어주는데, 이것은 부모와 떨어져야 하는 아이들에게 거의 마지막으로 주어지는 부모의 양육에 대한 상징으로 볼 수 있다. 아이들을 버려두기 전에 피워 주는 모닥불 또한 빵의 의미처럼 자녀에게 미치는 부모의 배려라고 볼 수 있다. 헨젤과 그레텔이 숲에서 길을 잃은 후 눈앞에 지팡이를 기댄 노파 한 명이 절름거리며 나타난다. 남매는 아무도 해치지 않을 거라며 친절히 대하는 노파에 의해 집 안으로 들어간다. 아이들은 호화스러운 저녁 식사를 대접받고 두 개의 예쁜 하얀 침대의 잠자리까지 제공받는다. 아이들을 친절한 척 보살펴 준 노파는 사실 마녀이고, 그 집은 아이들을 꾀기 위해 지은 것인데 아이들이 살이 찌면 마녀가 잡아먹으려는 것이다. 눈이 빨간 마녀는 시력이 좋지는 않았지만 동물처럼 코가 예민해서 인간의 냄새를 잘 알아챌 수 있다. 자식에게 제공해야 하는 것과 제공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별하지 못하고 무조건 다 해주는 것은 부정적인 어머니의 특징이다. 이러한 부정적 특성이 마녀의 눈이 잘 안 보이는 것으로 투사되어 나타난다. 헨젤과 그레텔을 잡아먹으려고 계획한 마녀가 아이들에게 대접하는 호화스러운 음식과 천국에 온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아늑한 잠자리는 끊임없이 자신의 품에 끌어안고 아이들에게 모든 것을 다 해주는 또 다른 어머니의 모습니다. 이러한 어머니의 특성은 아이들이 성숙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오늘날의 헬리콥터 맘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겠다.

사악한 마녀를 죽이는 것은 지금까지 어린 누이동생을 보살피고 위로하면서 이성적으로 해결 방법을 모색해온 헨젤이 아닌 줄곧 눈물을 흘리던 그레텔이다. 대부분의 동화에서 주인공이 위기에 처했을 때 도움을 주는 사람 왕자, 구원자등이 나타나서 문제를 해결해 주거나 불행을 청산해 주는데 이 동화에서는 그레텔 스스로 영리한 행동을 취해 문제를 해결해 상황을 극복해 나간다. 그 후 아이들은 마녀의 집으로 들어가 진주와 보석이 가득 담긴 상자들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주머니와 앞치마에 잔뜩 집어넣고 마녀의 집을 나선다. 마침내 집에 도착한 아이들은 아버지의 품에 와락 안기고 한시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던 아버지와 재회한다. 그사이 계모는 이미 죽어 있고, 헨젤과 그레텔은 아버지와 함께 행복하게 산다.

「헨젤과 그레텔」은 가난, 계모, 마녀, 자녀유기에 관한 이야기이다. 「헨젤과 그레텔」의 계모는 가난과 나라에 불어 닥친 기근 때문에 자신이 죽을 수도 있다고 판단한다. 그래서 겉으로는 아이들에게 친절한 척 하면서 나무를 하러 가자는 거짓말로 아이들을 숲으로 유인함으로써 자신의 본래 감정을 감춘 채 반대로 행동한다. 계모는 가난과 기근 그리고 아이들을 대상으로 놓아 자신은 좋은 사람이고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가난과 기근, 그리고 아이들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모습을 보인다. 계모는 자식 버리기를 가난 이라는 상황 때문이라고 합리화 하는데, 이는 자신은 선이고 가난이 악이라는 편 가르기를 통해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함이다.

빌헬름이 민담을 기록하였던 1810년 당시에는 이 이야기의 길이는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보다 짧았고, 남매의 이름에 대한 언급도 없었으며 어머니가 생모로 등장하였다(권혜경 7). 그런데 1819년 판에는 생모가 계모로 대체되어 나타남으로써 자녀 유기에 관한 행위에 대해서 타당성을 부여하고자 한듯하다.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 속 계모는 의붓 자녀들을 괴롭히고 미워하는 존재로 인식되어 있고 친 어머니의 존재는 자애로우며, 무한한 사랑을 보여주는 존재로 인식되어 있다고 말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생모가 자신의 친 자녀를 유기했다는 내용의 동화가 독자들에게는 상당한 충격과 거부감을 줄 수 있다. 그리고 이상적인 어머니상 혹은 부모상으로 이해하기는 사실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생모가 아닌 계모가 자신의 친자식이 아닌 의붓 자녀를 유기했을 경우에는 독자로 하여금 계모를 악의 존재로 간주하기 쉬워지게 함과 동시에 비판할 수 있는 존재를 제공하며 또한 부정적인 어머니상 혹은 부모상을 계모를 통해 나타낼 수 있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또한 1812년 판에서 부터는 이름이 없던 아이들에게 헨젤과 그레텔이라는 이름을 붙여 주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동화에 독자로 하여금 감정이입이 가능하게 함과 동시에 어린 독자로 하여금 교훈을 얻을 수 있게 하고자 의도하였다고 생각한다. 1857년 최종본에 이르러서는 동화의 분량이 원래 길이의 두 배 정도가 되게 수정되어 출판되었다. 초판본의 내용이 자식을 유기하는 부모에게 맞춰져 있다면 최종판 본에 갈수록 마녀의 존재와 마녀와 싸우는 남매의 이야기로 비중이 옮겨져 감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것은 자녀 유기에 대한 내용에 독자가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계모의 악한행동을 마녀라는 악으로 대표 되는 인물을 등장시킴으로 선과 악의 싸움에 초점이 옮겨지기를 원하는 의도가 숨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옛 이야기의 매력』(*The Uses of Enchantment: The Meaning and Importance of Fairy Tales*)에서 베텔하임은 이 동화가 아이들이 극복해야 할 의존심, 식탐, 파괴적 본능에 대해 교훈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 진 것이라고 주장한다(276). 단순하게 권선징악의 내용만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계모라는 인물을 통하여 부모에 대한 의존심을 극복하고 자신 스스로의 어려움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과 독립에 관하여 이야기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다른 학자들의 주장처럼 계모와 마녀를 동일시하고자 함을 엿볼 수 있다. 아이들이 마녀를 화덕에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가둬서 죽이는 것은 자신들을 숲에 유기한 못된 계모에 대한 일종의 복수 행위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등장하는 계모는 자신이 현재 처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아이들을 유기하는 이기적인 어머니의 원형이나 다름이 없다. 여성의 모성애는 친자식들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지만 의붓자식들에게는 호의적인 감정을 가질 수 없다는 특성을 지닌 것처럼 생각하는 우리 사회의 고정관념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겠다. 이른 아침 해가 뜨기도 전에 헨젤과 그레텔에게 와서 "일어나라, 늦잠꾸러기들아"(Wake up, you lazybones)라고 외치면서 아이들을 깨웠던 계모의 모습이, 여기서 곧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마녀의 모습과 동일시되며, 따듯한 사랑으로 감싸는 진짜 엄마와는 대조적으로 음식이라는 물질만으로 정서적 학대하는 가짜 엄마의 모습인 것이다.

3.2. 「헨젤과 그레텔」 수업의 예

본시 학습에서는 앞서 했던 작품 「라푼젤」과 동일하게 전체적으로 작품 읽기 전 단계, 작품을 읽는 단계, 작품을 읽고 난 후 단계 3단계로 나누어 각 단계별로 여러 활동을 실행하여 학생들의 작품에 대한 생각의 변화를 관찰하였다. 「헨젤과 그레텔」을 읽기 동화로 선택한 이유는 앞서 읽은 작품 「라푼젤」에서는 부정적인 여성상으로 대모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동화 속에서 마법과 같은 비현실적인 능력을 가진 마녀로 묘사되어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헨젤과 그레텔」에서는 현실에서 만나볼 수 있는 계모에 대해서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학생들이 읽은 작품 속 계모는 초판에서는 생모로 나오고 있다는 점과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던 내용과는 다르다는 점에서 흥미롭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헨젤가 그레텔」작품 속에서는 선과 악의 대립구도보다는 부모의 자녀 유기내용과 계모와 동일시 여겨지는 마녀로부터의 탈출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어 작품을 읽었다.

3.2.1. 읽기 전 단계 (Pre-reading Stage)

가장 먼저 작품 읽기 전 단계에서는 학생들에게 읽게 될 작품에 대해서 기존에 어떠한 생각 혹은 느낌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학습 활동지를 통한 사전 질문을 하였다. 학습 활동지의 구체적인 내용은 「헨젤과 그레텔」 속에 어떠한 등장인물이 존재하는지, 위의 등장인물들에 대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던 생각, 느낌, 등장인물의 성격, 외모 등을 영어로 서술하도록 하였다. 「헨젤과 그레텔」의 경우에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는 계모, 남매, 마녀, 아버지등과 같은 중심적인 인물이 등장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이 등장인물을 묘사할 때에 되도록 어려움을 느끼지 않고 흥미를 잃지 않도록 하기위해서 형용사나 명사형 단어를 사용하여서 서술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라푼젤」에서와 마찬가지로 영어로 묘사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학생들에게는 우리말로 묘사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학생들이 나열한 단어들을 통해서 계모, 남매, 마녀, 아버지가 어떠한 식으로 묘사되었다고 생각하는지에 관해서 서로 이야기 하는 시간을 가져보았다. 계모와 마녀의 경우 대부분이 매우 부정적인 특성을 나타내며 비판하는 내용들의 단어임을 알 수 있었다. 위와 같은 작품 읽기 전 활동을 통해 평상시 학생들이 기존의 애니메이션과 어릴 적 동화읽기를 통해 등장인물들에 대해 가지고 있던 작품 속 여성들에 관한 고정관념에 대해서 알 수 있었다.

1차시 수업에서 22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헨젤과 그레텔」작품 읽기 전 활동으로 실행되었던 인물묘사에 관한 학생들의 응답을 계모, 남매, 마녀, 그리고 아버지 네 가지로 나누어 조사한 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계모와 남매의 인물 묘사

인물	묘사 표현 (성격, 외모, 느낌, 생각 등)
계모	나쁜, 못된, 비열한, 재수 없는, 짜증나는, 천벌 받을, 인면수심의, 양심 없는, 이기적인, 무서운, 비정한, bad, mean, cruel, selfish, witch-like.
남매	똑똑한, 용기 있는, 침착한, 불쌍한, 우애가 좋은, 착한, 지혜로운, smart, brave, nice, poor, warm-hearted.
마녀	늙은, 추한, 잔인한, 무서운, 살벌한, 소름끼치는, 쭈글쭈글한, 냄새나는, old, ugly, scary, horrible, bad-smelled.
아버지	무능력한, 멍청한, 나쁜, 야비한, 힘없는, 약한, powerless, stupid, bad, mean, weak.

작품 읽기 전 단계를 통해 학생들의 동화 속 등장인물 관한 고정관념에 대해서 알아본 후 작품을 읽는 단계의 수업을 실행 하였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3.2.2. 읽는 중 단계 (While-reading Stage)

작품을 읽는 단계에서는 작품의 등장인물 형상화에 초점을 맞추어 글의 흐름을 읽고 실제적으로 「헨젤과 그레텔」속 계모와 마녀가 어떠한 단어들로 묘사 되어 있는지 찾아보았다. 그리고 찾아본 단어들이 어떠한 느낌과 어떠한 특성들로 사회적으로 규정되어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계모와 마녀 둘 다 부정적인 이미지를 주는 단어들로 묘사된 것을 발견하였다. 학생들과 이전에 읽었던 「라푼젤」속 마녀와 「헨젤과 그레텔」속의 마녀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에 관하여 간략한 비교를 한 후에 작품 속 계모에 초점을 맞추어 수업을 진행하였다. 작품을 읽으면서 학생들과 계모에 대한 어떤 비판적 의문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 충분히 생각할 시간을 준 후 학생들로 하여금 계모라는 인물에 대해서 질문을 만들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앞서 「라푼젤」작품읽은 후 활동을 통해 한 번의 경험이 있어서 「헨젤과 그레텔」작품에 대한 비판적 발문하기는 어렵지 않게 이루어 졌다. 그 결과 학생들에게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얻을 수 있었다.

-계모는 어떻게 해서 이 아이들의 계모가 되었을까?
-계모는 왜 아이들을 버렸을까?
-계모와 아버지는 남매 유기한 후 행복하고 살았을까?
-계모와 아버지는 남매가 첫 번째 유기 후 돌아 왔을 때 어떤 기분이었을까?
-계모는 아이들을 버리고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았나?
-아버지는 계모의 행동에 대해서 정말로 마음속으로 동의하지 않았던 것일까?
-계모혼자서 아이들을 버리는 것을 생각해 냈을까?
-계모는 아이들을 버리지 않고 가정을 유지하는 방법은 없었을까?
-헨젤과 그레텔의 가정형편은 정말로 아이들을 버려야 했을 만큼 어려웠을까?
-왜 아이들을 버리는 사람은 꼭 계모여야만 했을까?

이러한 질문들을 바탕으로 학생들과 함께 계모에 대한 다양한 분석을 시도 하였다. 그리고 헨젤과 그레텔을 유기하는 인물이 왜 계모여야 했는지에 관해 집중적으로 의견을 나누었다. 의견 나누기를 통해 얻은 결론은 만약 친부모가 남매를 유기했다고 했을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받아들여지기 힘든 충격적 이야기 전개이며 또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이상적인 부모에 대한 좋지 않은 관념을 심어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줄 수도 있는 동화가 되었을 것이기 때문으로 정리 되었다. 혹은 계모가 아닌 친척이라고 가정했을 경우에는 친척들이 남의 집 사정까지 간섭해서 아이들을 버린다는 것은 조금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여 계모가 등장했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학생들도 있었다. 의견을 나누어본 결과 학생들은 공통적으로 아이들을 유기해야만 하는 악으로 등장하는 인물이 필요했음을 느꼈고 그것이 계부 혹은 계모가 될 수 있었는데 이 작품 속에서는 계모로 등장했다고 결론내리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렇다면 여기서 왜 꼭 계모는 나쁜 사람으로만 인식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기로 하였다. 사실 계모는 새어머니를 의미한다. 새어머니가 꼭 학대하고 의붓자녀들을 유기하는 인물만이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동화 작품을 어린 시절 읽음으로 인해서 학생들은 새어머니 즉 계모에 대한 특정한 부정적인 여성상을 가짐을 알 수 있었다. 사실 이 작품의 초판에서는 친어머니가 아이들을 유기하는 것으로 나와 있다. 근래에도 이러한 동화 속에서 일어날 법한 일들이 사실 빈번히 친 부모에 의해서 일어남에도 아직까지 학생들의 인식 속에는 친부모는 자애롭고 한없는 사랑을 보여주는 반면 새어머니나 새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학대하는 또는 악한 이미지로만 인식되어 있다는 것이 흥미롭다. 학생들 역시 초판의 내용과 비교 하여 수정된 판본을 읽은 후에 많은 의구심을 가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작품 읽기 과정이 끝난 후 마지막으로 작품을 읽고 난후 정리 단계의 수업을 진행하였다.

3.2.3. 읽은 후 단계 (Post-reading Stage)

정리 단계에서는 작품분석을 통한 「헨젤과 그레텔」속 부정적인 여성상 계모와 초판에 나와 있는 생모에 대한 재평가 및 다른 시각에서 작품 분석하기를 하였다. 왜 초판에 등장 하였던 친모가 계모로 수정되어야만 했는지를 작품이 쓰인 시대적 배경 및 사회가치관과 연결 지어 분석해 보았다. 그리고 이를 통해 「헨젤과 그레텔」이라는 작품을 읽은 독자들이 어떠한 여성상을 가지게 되었는지에 대하여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기존의 내용을 재구성하여 「헨젤과 그레텔」속에 생모와 계모를 모두 등장시켜 남매를 유기하는 것은 생모이고 이후에 아이들이 마녀로부터 도망쳐 나왔을 때 생모는 죽고 계모가 있다는 가정 하에 이후의 이야기에 대해서 학생들이 이야기를 써보는 활동을 진행해 보았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마녀에게서 도망쳐 나와서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또 다시 계모에게 버림을 받아 이제 영영 돌아 올 수 없게 되어버렸다는 내용.
-마녀에게서 도망쳐 나온 후 계모에게 친모 보다 더 많은 사랑을 받으며 친어머니로부터 받은 상처를 치유해 나가며 잘 살았다는 내용.
-남매는 마녀에게서 얻은 보석들을 가지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으나 아버지가 새어머니와 살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하여 남매는 더 이상 부모님과 함께 살지 않고 독립하게 되었다는 내용.
-집으로 돌아온 후 아버지로부터 생모가 마녀였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고 남매 또한 자신이 마녀 혹은 마법사가 아닌지 궁금해 하며 자아를 찾는다는 내용.

이렇게 작품 읽은 후 활동을 하면서 학생들은 계모가 꼭 나쁜 인물로 묘사 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자신이 스스로 작품의 결말을 만들어 봄으로써 본 논문에서 의도 하였던 비판적 읽기교육을 통한 작품 속 여성상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더불어 창의적인 글쓰기 수업까지 이루어진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제 4장 결론

본 연구는 영어 동화 읽기를 통한 작품 속 부정적 여성상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갖게 하기 위한 의도로 학생들의 흥미도와 수준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비판적 읽기 수업 방안을 모색하고자 진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그림동화의 작품 중 「라푼젤」과 「헨젤과 그레텔」이 부정적 여성상의 전형에 대해서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중학교 학생 22명을 대상으로 한 비판적 읽기 수업을 진행하였다.

22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3주간의 수업을 진행한 결과, 수업을 진행하기전 학생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동화 작품에 대해 인식이 대부분의 면에서 획일화 되어 있었고, 동화 속 여성상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 선으로 등장하는 아름답고 착한 여자 주인공의 모습이 이상적인 여성상이고 올바른 여성상인 것처럼 고정관념화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3주간의 짧은 기간 동안 두 가지 작품을 통한 비판적 읽기 수업을 진행한 결과 학생들은 기존에 자신들의 가지고 있었던 것이 고정관념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기존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되었고, 그러한 의문점등을 통한 자발적인 질문해보기와 재해석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전국적인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아니라 한 학교의 일부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기 때문에 여러 중학교 학생들의 영어 수준의 결과로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연구 기간이 짧고, 개개인의 변인이 일정하지 않고, 영어 수준이 작품분석에 미흡하므로 본 연구를 실험하고 적용하고자 할 때는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활동계획이 필요하다. 또한 두 가지 작품을 통한 부정적인 여성상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어졌으므로 여성상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 대하여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인 용 문 헌

고정미. 「토의망식 토론을 활용한 비판적 읽기 능력 신장 방안」.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2008.

국가 교육과정 정보센터 <heep://www,nice.re.kr> [인용 2012.11.7.]

권혜경. 「서구 민담에서 동화로, 동화에서 애니메이션으로의 변용과정에 나타나는 정치적 전유: 그림(Grimm)동화와 디즈니 애니메이션을 중심으로」. 『새한영어영문학』 49.4 (2007): 1-27.

김미혜. 「비판적 읽기 교육의 내용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2000.

김양희. 「서양 전래 동화속의 여성상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남대학교 대학원, 2006.

김정현. 「원작동화와 개작한 소설을 통한 영문학 교육: 『푸른수염』과 『피의 방』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2009.

김혜정. 「텍스트 이해의 과정과 전략에 관한 연구: 비판적 읽기 이론 정립을 위한 학제적 접근」.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2000.

노들먼, 페리. 『어린이 문학의 즐거움 1,2』. 김서경 옮김. 서울: 시공 주니어, 2001.

루트반, K.K. 『페미니스트 문학비평』. 김경수 옮김. 서울: 탑출판사, 1997.

린트호프, 레나. 『페미니즘 문학이론』. 이란표 옮김. 서울: 인간사랑, 1998.

백규리. 「비판적 사고력 신장을 위한 문학비평문 쓰기 지도 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교육대학원, 2005.

선주원. 「비판적 사고를 강조한 소설 읽기에 대한 중학생의 태도 분석 연구」. 『청람어문교육』 45 (2012): 327-49.

손은주. 「독인-프랑스 민담의 비교연구: 그림형제의 민담과 빼로의 민담을 중심으로」. 『뷔히너와 현대문학』 15.1 (2000): 277-97.

신길호. 『영어과 교과교육학』. 서울: 북스힐, 2007.

이상택. 「마녀사냥(Witch-Hunts)은 왜 유럽에서 발생했을까?」. 『카톨릭사상』 42 (2010): 31-35.

이완기. 『초등영어교육론』. 서울: 문진미디어, 2007.

이영재. 「근대 이전 유럽의 형벌 유형: 사형의 기원과 처형 방법을 중심으로」.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형사정책연구』 29 (1997): 249-78.

이케카미 순이치. 『여성에게 문화는 있었는가』. 강응천 옮김. 서울: 사계절, 1999.

페로, 샤를. 『페로동화집』. 전세철 옮김. 서울: 노블마인, 2005.

최석무. 「크리티컬 리터러시를 활용한 "백설공주" 읽기교육: 원작과 영화, 패러디 작품을 중심으로」. 『영어영문학』 55.5 (2009): 885-906.

Bettelheim, Bruno. *The Uses of Enchantment: The Meaning and Importance of Fairy Tales.* New York: Vintage Books, 2010.

Comber, Barbara, and Anne Simpson. *Negotiating Critical Literacies in Classrooms*. New Jersey: Lawrence Erlbaum Associates, 2001.

Cox, M. I. P., and A. A. Assis-Peterson. "Critical Pedagogy in ELT: Images of Brazilian Teachers of English." *TESOL Quarterly* 33.3 (1999): 433-52.

Donoghue, Emma. "The Tale of the Hair." *Kissing the Witch.* New York: Joanna Cotler Books, 1997. 83-99.

Ferguson, Mary Anne. *Image of Women in Literature*. Boston: Houghton Mufflin Company, 1986.

Freire, Paulo. *The Politics of Education*. New York: Bergin & Garvey, 1985.

Gilbert, Sandra, and Susan Gubar. *The Mad Women in the Attic: the woman writer and the nineteenth-century literary imagination.* New York: Yale UP, 2000.

Grimm, Jacob, and Wilhelm Grimm. *The Annotated Brothers Grimm*. Ed. Maria Tatar. New York and London: Norton & Company, 2004.

_____. *Grimm's Complete Fairy Tales.* San Diego: Baker & Taylor, 2011.

_____. *Hansel & Grethel & Other Grimm's Fairy Tales.* New York: E.P. Dutton & Company, 1920.

Luthi, Max. *The European Folktale: Form and Nature (Folklore Studies in Translation)*. Trans. John. D. Niles. Indianapolis: Indiana UP, 1986.

McDaniel, Cynthia A. *Critical Literacy: A Way of Thinking, a Way of Life.* New York: Peter Lang, 2006.

McLaren, Peter. *Life in Schools: An Introduction to Critical Pedagogy in the*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Foundations of Education. New York: Longman, 1998.

McLaughlin, Maureen, and Glenn L. Devoogd. *Critical Literacy: Enhancing Students' Comprehension of Text.* New York: Longman, 1998.

Morgan, Brian, and Vaidehi Ramanathan. *Critical Literacies and Language Education: Global and Local Perspectives.* New York: Cambridge UP, 2005.

Norton, Bonny, and Kelleen Toohey. *Critical Pedagogies and Language Learning.* New York: Cambridge UP, 2003.

Scarre, Geoffrey, and John Callow. *Witchcraft and Magic in Sixteenth and Seventeenth Century Europe*. London: Palgrave Macmillan, 2001.

Schanoes, Veronica, L. *Fairy Tales, Myth, and Psychoanalytic Theory: Feminism and Retelling the Tale*. New York: Ashgate, 2014.

Weitzman, J., D. Eefler, E, Hokada, and C. Ross. *Sex-role Socialization in Picture Books for Preschool Children.* Chicago: U of Chicago P, 1972.

Wright, A. *Storytelling with Children*. Oxford: Oxford UP, 1995.

Zipes, Jack. *The Brothers Grimm: From Enchanted Forests to the Modern World.* New York: Macmillan. 2002.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부록 1]

학년 반
이름

※ 동화 「라푼젤」에 등장하는 라푼젤과 마녀의 이미지에 대해서 영어 또는 우리말로 명사와 형용사 위주로 표현해보세요.

등장인물	이미지 (생각, 느낌, 성격, 외모 등)
라푼젤	
마녀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부록 2]

학년 반
이름

※ 동화 「라푼젤」의 작가가 새로운 판본을 출시하려고 합니다. 자신이 마더 고델이라는 가정 하에 작가에게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편지로 써봅시다. (글의 내용은 자유롭게 하나 비판적 읽기 수업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어 글을 쓰도록 합니다.)

Dear, author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부록 3]

학년 반

이름

※ 동화 「헨젤과 그레텔」에 등장하는 계모, 남매, 마녀, 그리고 아버지의 이미지에 대해서 영어 또는 우리말로 명사와 형용사 위주로 표현해 보세요.

등장인물	이미지 (생각, 느낌, 성격, 외모 등)
계모	
남매	
마녀	
아버지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부록 4]

학년 반

이름

※ 동화 「헨젤과 그레텔」의 생모가 아이들을 숲에 유기하였고, 마녀로부터 남매가 탈출한 후 집에 돌아왔을 때 생모는 죽고 계모가 있다. 라는 결말을 가정하여 뒤에 이어질 내용을 써보도록 합니다.

When we came back to our home, our mother was dead. And now we have a stepmother.

Collection @ chosun